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編輯人 閔泰瑗　發行人 安在鴻　印刷人 崔益漢

購讀料 一箇月 壹圓 ……　廣告料 ……

論說
亞細亞國際聯盟

一

얼마前에 駐米中國公使가 土耳其政府를 訪問하고 亞細亞國際聯盟의 組織에 關하야 商議한 바 잇섯다 그리하엿더니 七日發의 『앙고라』電은 土耳其, 中國, 『아프가니스탄』 波斯, 勞農露西亞의 五國代表가 亞細亞國際聯盟成立의 協定을 結하엿는데 條約의 署名其他는 繼續하야 露都莫斯科에서 進行될 것이라 하는 것을 來報하야 事實上 亞細亞國際聯盟이 成立되엿다는 것을 알리게 되엿다

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가티 瑞西國 『제네바』에 그 本部를 둔 國際聯盟은 世界의 모든 國家를 包擁하려 하는 것이지마는 아즉 아지 그 目的을 達하지 못하고 米國과 勞農露西亞와 가튼 世界的 勢力이 지금도 그 圈外에 서 잇게 되엿섯다 그리하야 米洲에서는 米洲聯盟을 組織할 意思를 發表한 배 잇고 亞細亞에서는 또한 亞細亞民族大會란 것의 召集된 이 잇서서 또한 部分的 運動을 行하려고 하는 者 1 잇섯다 그러나 그런 것은 本質上 瑞西에 本部를 둔 國際聯盟과 差異가 잇는 것이 아니요 同一한 資本主義的 帝國主義的 色彩를 가진 國家들의 活動에 屬한 것으로 박게 볼 수 업는 것이다 亞細亞民族大會라는 것은 一見 亞細亞의 弱小民族의 大同團結을 行하야 列强에 對하려고 하는 것과 가티도 뵈이지마는 그 實은 日本의 帝國主義的 野心의 所使에 지나지 못하는 것인 故로 우리 朝鮮사람은 全體로서 그에 反對하는 態度를 取하엿던 것이엿다

三

그런데 今番에 成立을 보게 된 亞細亞國際聯盟은 日本을 除外한 亞細亞의 國際聯盟이라는 點으로 보아서 卽 弱小民族과 世界의 모든 資本主義的 國家로부터 排斥밧는 勞農露西亞가 參加하엿다는 點으로 보아서 前記한 諸種의 國際聯盟과는 本質上의 差異가 잇다는 것을 認定하지 아니할 수 업다 亞細亞國際聯盟의 目的하는 바는 생각건대 被壓迫階級及被壓迫民族의 利益을 保全하자는 것일 것이니 世界政局에 一大波紋을 惹起할 性質의 것이다 中國의 排外的 氣勢에 驚愕하고 잇는 列國에 對하여는 中國이 이 亞細亞國際聯盟에 參加하야 正式으로 公然하게 勞農露西亞와 握手하게 되엿다는 것이 不少한 衝動을 줄 것이다 우리는 이 亞細亞國際聯盟의 實力을 過信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또 中國이 그 聯盟에 參加하엿다 하더라도 얼마만한 決心으로써 그에 協力할가 하는 것은 매우 疑問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업다 그러나 이와 가튼 組織이 成立되엿다 하는 것이 被壓迫東方諸民族에게 莫大한 心理的 影響을 줄 것은 누구나 想像하기에 어렵지 아니할 일이다

四

이와 가티하야 世界二分의 形勢는 더욱 促進되는 觀이 업지 아니하다 발서 一千九百十七年에 露西亞에 쏘베트 政權이 樹立된 때부터 世界는 二大陣營으로 갈리엇다고 하엿섯스나 지금 이 亞細亞國際聯盟의 成立을 機會로 하야 그 關係가 더한層 明白하게 우리의 眼前에 나타나게 되여 왓다 世界는 恒常 動搖되여 不絶히 變化되여 간다 그리하야 現狀이 打破되여 舊勢力이 顚覆되고 新勢力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現在에 잇서서 不平을 가진 사람은 變革을 歡迎하지 아니할 수 업나니 그런 意味에 잇서서 우리는 이 亞細亞國際聯盟의 成立을 歡迎하지 아니할 수 업다

坑夫罷業蒙害 十二億五千萬弗

(倫敦九日發) 英國政府의 發表에 依하면 炭坑夫三分의 一은 旣히 就業하얏스며 今日까지의 炭坑夫罷業으로 因하야 直接間接으로 蒙한 損害는 十二億五千萬弗以上에 達하엿다 더라

伊太利下院 百餘民黨員除名
原因은 首相問責

(羅馬九日發) 伊太利下院은 三百四十一票對十二票로 皇族及首相並其夫人에게 對한 暗殺未遂犯을 死刑에 處하는 法律案을 可決하엿스며 又其際議員 『아벤치네』가 議會에서 『마테오치』의 殺害되엿슴에 對하야 首相의 責任如何를 質問한 外닭에 議場은 沸騰되야 『아벤치네』 一派並人民黨議員百二十四名을 除名하엿다 더라

顧維鈞氏通電을 張氏推戴로 觀測
張氏政治干涉을 懇請

(北京九日發) 顧維鈞氏는 張作霖氏에게 對하야 速히 入京하야 政治干涉하기를 請하는 旨의 書面을 九日作成하야 昨夜司法次官을 使로서 奉天에 特派하얏는데 十日도 張氏에게 對하야 時局難을 歎하고 政局維持를 求하야 自己의 休養을 欲求하는 旨의 通電을 發하엿다는 바 此는 顧維鈞氏가 張氏大總統推戴의 意가 잇는 것을 表示한 것으로 認定되더라

九江奪還說

(上海十日發) 南京으로부터의 報道에 依하면 孫傳芳은 九日軍艦四隻을 引率하고 上流로 向하엿스며 又聯軍本部는 盧香亭이 九江을 奪還하엿다고 傳한다 더라

係爭問題와 英首相의 言明

(倫敦十日發) 英國首相 『볼드윈』氏는 十日最近 中國과 英國 以下各國間에 일어나는 係爭問題에 就하야는 友交的 精神으로써 此를 解決코자 하는 念望을 가졋다고 確言하엿다 더라

『카이젤』歸國을 永久禁止

(伯林九日發) 獨逸共和國建設八週年인 九日社會黨은 前 『카이젤』의 歸國을 永久히 禁할 案을 提出하엿다 더라

中西訂約?

(北京九日發) 九日閣議에서 來年五月十日滿期가 되는 中國西班牙通商條約의 改訂에 對하야 審議하엿는데 同條約第二、第三條에 基하야 滿期되기 六個月前에 同國政府에 照會를 發하기로 決定하야 此準備에 着手하게 되엿다 더라

國聯理事會 議事目錄發表

(쥬네바九日發) 國際聯盟理事會는 十二月六日부터 開會될 聯盟理事會의 議事目錄을 發表하엿는데 右는 軍縮經濟會議期日決定도 包含되엿잇다 더라

首相被訴關聯 六十名에 達한다
十一日에 判事歸阪?

(東京電) 松島事件에 關하야 檢任判事인 角南豫審判事는 東京에서 若槻首相, 川崎內務次官, 湯淺朝鮮政務總監等의 取調를 終了하고 十一日朝九時半特急으로 大阪에 歸還하기로 되엿는데 同事件에 關하야 取調를 受한 者는 六十名의 多數에 達하엿는 바 東京에서는 五名 이나 取調未了한 者는 同判事의 歸阪後 大阪으로 召喚하야 取調를 行할 方針인 듯하다 하며 金山檢事正의 上京은 同判事의 歸阪後 가 될 터이라 더라

不良水組 救濟具體案
土改理財兩課長會見決定

組合償債償還이 契約과 如히 履行되지 아니하야 其成績이 不振한 水利組合에 就하야는 曾히 總督府는 整理의 意見을 가지고 잇던 바 遂히 產米增殖의 實行과 共히 土地改良事業을 獎勵하는 一方 旣設水利組合 中의 不良組合에 就하야서의 救濟에 着手하기로 되야 此의 具體案은 湯村土地改良課長의 手에 依하야 研究中 八日夜에 至하야 大體의 成案을 得하얏슴으로 九日松本理財課長과 救濟에 要할 低資問題에 關하야 審議를 遂하고 同日中成案을 決定하야 渡東中인 安達開墾課長, 草間財務局長에게 報告하기로 하얏다, 그런데 右整理의 內容은 即 從來組合償還이 不振한 臨津, 津南, 陽東, 陽川, 深谷, 同仁, 白揚, 文幕, 博川, 安鶴, 高城, 蓮堤, 龍淮, 上南, 梁山, 初同等 約十八組合面積約三千町步에 對하야 爲先 組合에서 呼訴하는 바의

一、認可當時에 比하야 費用이 高한 點

一、修繕費를 좀 더 要하는 點

에 就하야 穀의 時價, 實際의 收穫 更히 今後 特別한 費用까지도 要할 與否 等 各地區에 就하야 詳細한 調査를 行한 結果 償還不能의 組合은 低資로써 全部償却을 行케 할 으로 하야 日下 各項中(一)에 該當한 것이 三組合、(二)에 該當한 것이 二組合、(三)에 該當한 것이 三組合이며 湯村土地改良課長은 此에 要할 低利資金에 關하야 九日午後 松本理財課長과 會見하얏다、右土地改良課長의 申出에 依하야 理財課長은 此에 要할 低利資金에 關하야 九日午後 ……

前記組合

에서 申出한 負擔力過重은 大體에 잇서서 不當하고 此際에 特히 救濟할 것으로는 大體入組合(組合名은 當分秘密)으로 決定함에 至하얏다、玆에 入組合의 整理案內容을 採聞하면

一、從來組合債償還期限의 延期인 것으로서 此를 延長하야 整理할 수가 잇다 認하는 것은 單히 償還期限의 延長과 共히 多少低資를 融通하여야 할 것은 此를 行할 事

一、前記方法에 依할 시라도 尙且

低利資金

의 融通을 大藏省에 要望코자 手續을 取하게 될 터인 바 所要資金其他는 左와 如하더라

一、所要低資額 百五十萬圓

一、前記利率 五分一厘

一、組合融通利率 五分九厘乃至六分

一、償還期限 平均三十個年

總督府는 右의 融通을 交涉함과 共히 低資運用委員會의 可及的 急速히 決定을 要望하야 不良組合은 全部 十五年度末에 低資로 替換할 것을 終了케 할 豫定이라 더라

浦項各團體의 七日紀念大盛況
場內標語數十種裝飾 集合者百餘名의 盛況

十一月七日露西亞革命第九週年을 紀念하기 爲하야 浦項에 잇는 各社會團體 가 合同하야 準備에 努力하야 當日에 紀念講座와 同志懇談會를 山下町近日靑年會館에서 開催한다 함은 旣報하엿거니와 七日下午七時半부터 定刻前에 모와든 群衆과 百餘名이 列席하야 後 반 莊嚴한 葵樂과 委員林日長君의 開會辭가 有한 後 各團體代表들의 懇曲한 祝詞가 有한 後 式을 마치고 이어 赤露革命歷史概觀과 東社會運動史概要의 講座가 잇섯는데 後四月會, 衡平社, 女子靑年會, 勞働會等의 各代表들의 熱烈한 感想談으로 幕을 닷치고 다시 자리를 박구어 茶菓會를 열고 同志間에 로 胸襟을 열어 各樣各色의 懇談이 무른 녹엇는데 四圍를 에워 싸고 잇는 意味深長한 標語는 더욱 異彩를 띄웟다 드라

忠南全道의 本年稻作豫想
平年보다 二分三厘減

忠南全道의 稻作은 前年과 比等하나 本年은 天候不順한 關係로 植付는 比較的 順調로 進捗하얏스며 오히려 七月下旬의 霖雨로 因하야 局部的으로 被害가 多大한 同時에 또 浮塵子로 因하야 被害가 不少하야 約 合으로 平年作에 比하야도 良好한 成績이 되리라고 할 수 업는 바 消當局의 豫想에 依한즉 本月一日現在의 水稻豫想高는 一、四二〇一四五石으로서 平年作過去七個年中 最多 最少의 兩年을 除하고 五個年間 平均收量에 比하면 二分三厘 即 三四八三石이 減少하고 前年實收高에 比하면 一、七三六石이 減少하엿다 더라(大田)

△玄米		
群山	四、二七八	二、一五七一四
五山里	五二	二五
計	四、三五五	二、二三四
△籾		
金堤	六〇〇	六〇〇
江景	一、一四〇	八六〇
白山	二、九六〇	二、九六〇
計	四、七〇〇	四、四二〇
計	二、二六六	二、二五六

東拓農業倉庫
湖南線沿岸의 十月末現在總計

湖南線沿岸의 東拓農業倉庫十月末總計는 左와 如하며 其外金額은 貸出累計五千三百三十二口五萬五千四百三十圓으로서 回收는 四千八百九十二口五萬二千四百三十圓이리더라(大田)

	入庫	出庫
△白米		
群山	二、二五二	二、二五二
江景	一四	四

松禾發展會總會
公會堂과 公園建築期成 委員을 選定하야 活動한다

松禾는 山間僻地에 蟄伏하야 發展될 餘望이 無함을 郡內有志諸氏는 恒常遺憾으로 녁이고 苦心하든 바 去三日에 發起人會의 經路를 따러 昨六日午前十一時부터 松禾面事務所內에서 松禾發展大會創立總會를 開催하고 議長으로 宋南熙氏와 書記姜齊模氏를 選擧하고 各事項을 討議中 正副委員長二人과 會計二人과 顧問二人을 選擧后 經費金에 對하야서는 松禾面에서 二千圓과 其他面에서 二千圓 合計四千圓을 準備進行케 하고 午後三時에 散會하엿는데 決議案은 左記와 如하다 더라

△決議案

一、本會는 松禾公會堂及公園建設을 期함

一、會員은 松禾面內居住者全部로서 組織하되 同面內住民은 來請有無를 不拘하고 加入者로 看做함

一、本會는 松禾公會堂과 公園建設을 期成함으로서 目的함

一、本會는 目的한 事業을 遂成키 爲하야 左記委員을 選擧하야 事務를 執行케 함

一、執行委員은 松禾邑內에서 若干人과 各面에서 區長及有志各一人式 選擧함

(下略)

◇委員氏名

執行委員長 孫致洛　副委員長 宋南熙

執行委員 吳東健 會計 徐光昊

顧問 郡守 中村 署長 外二十九人

裡里의 無電講演
無電研究所主催 本社支局後援으로

湖南線裡里에서는 東亞無線研究所主催와 本社支局後援으로 十一日午後八時에 無電學術講演會를 當地裡里座에서 開催한다는 데 地方人士의 多數來聽하기를 바란다 하며 聽講料는 普通三十錢으로 本報讀者에게는 下足料十錢을 바드리라 더라(裡里)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 住所氏名明記

永興儒林 諸君에게

◇現代에 處하야 所謂儒林이라는 사람이 만타 그러면 그 儒林에 在하야 一律로 오는 罪過를 罰하기 이 非一非再임으로 不得已 此에 擴業을 폐하야 幸히 諸君의 反省을 促하는 同時 一言으로 付托코저 한다

◇諸君! 諸君은 恒常 官邊에 阿附하야 掌議職員等을 만 쫏차 濫求하다가 그의 祭物로 南川廟의 建物을 荒凉에 無價讓與하야 의 財團을 ……하얏스며 君子性을 ……

◇그리하야 君等의 落伍를 ……하고 天下의 耳目을 掩蔽코저 하는 …… 校所寄附하엿다는 …… 이 것이다 ……

◇諸君이 反省할 시어다 世不遠 君等의 家子孫의 股鑑이 아닌 줄 아는가 猛省하라 諸君이여 (永興一푸로)

裡里靑年總會
諸問題續出로 會場一時混亂

湖南線裡里靑年會에서 지난 八日午後八時부터 第四回例會를 當地元熙女塾講堂에서 開하고 議長林約氏의 司會로 前會錄朗讀과 委員補選이 有한 後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는데 其他事項에 入하야 臨時總會의 委任으로 委員會에서 除名及停權 處分을 當한 會員側으로부터 今番處分은 事實이 不當하다 又는 不公平하다 하야 幾個人의 感情으로부터 産出한 것이 아니냐 하는 質問이 이러나며 一方으로 前臨時總會時에 淘汰를 當한 會員으로부터 當時 委員不信任案을 提出하고 그 當時에 當選되엿든 委員들에게 對하야 委員改選 以後의 本會事業에 可觀할 것이 何者가 有하냐 하는 質問과 容辨 等이 여러가지 險惡하게 되자 議長은 嘲弄으로 會議를 停止식히고 嘲弄한 空氣는 極히 鎭撫되엿스니 後에 紛亂은 爭執한 後 決定되어 臨時總會로 推移하기로 하고 翌午前三時頃에 閉會하엿다 더라

◇決議案

一、會館建築委員에 關한 件 建築委員은 田裕鎭、林約、白南紳、金炳洙、趙遠鉉、金基珥、黃義準、裴德一 選定

一、新入會員審査의 件 李述會、尹大鉉

一、全北靑年大會에 出席할 代議員選擧의 件 代議員選擧는 委員會에 一任키로 하다

一、被選委員 林鍾根 白樂基 金大煥 林淡珍

三氏의 美擧
敎育界를 爲하야 財產을 寄附햇다

平北龍川郡楊下面立岩洞有志張昌楠氏는 本來公益事業에 만흔 貢獻이 有하야 오던 바 最近에 立岩洞私立養興學校의 運動場이 狹少함을 遺憾으로 思하고 自己所有畓五百餘坪을 運動場으로 寄附하고 또한 楊市公普校에 二十圓價이 되는 時計一座를 寄附하얏다 하며 同面長松洞財產家鄭利源氏는 楊西面北所洞自己所有地宅壹拾六石五斗現價貳百에게 都合正租六石五斗現價八十餘圓을 今年度洪水로 因한 損害로 支出이 難하다 하야 免除하얏스며 또한 楊市郵便所長日人池田氏는 今般教育界를 爲하야 金一百九十圓을 楊市公普校, 楊市普成學校, 龍岩浦小學校, 日本岡山小學校, 新義州●學校, 平北濟免囚保護會等六處에 分配寄附하얏는대 一般은 以上三氏의 美擧를 讚頌不已한다고(楊市)

國別	男	女
露國人	六五	二七
米國人	二一	六
英國人	一六	〇
獨逸人	八	一
佛國人	四	一
라트비아	三	一
홀랜드	二	一
白耳義	二	一
波蘭	二	一
丁抹人	二	一
其他	三	二

人六名官敎師五名工業五名等이고 그 外는 無職이 五十五人인 바 國別人數를 보면 다음 갓더라

學級延長期成 面民大會
廣州松坡公普校

廣州郡中垈面松坡公立普通學校는 四百餘名의 學生을 收容하는 中 垈六旺兩面內에 唯一한 敎育機關으로서 四學年制에 敎授를 하게 됨으로 그 四學年制學級으로는 初等敎育이 나 完全히 가르칠 수 업게 되여 兩面有志及學父兄諸氏들은 一大遺憾으로 思料하고 同校를 六年制로 速速延長하기 爲하야 兩面民大會를 同校講堂內에서 開催하고 中垈面長洪璇杓氏 司會下에 同校後援會를 組織하기로 一致可決하後 諸般事비를 決議하고 左와 如히 委員을 選擧하야 後學年延長問題에 對하여는 該當局에 陳情키로 하고 一切를 委員에게 一任하고 閉會하엿다 더라

◇委員

會長尹相贊 副會長金東植 李世鎬 顧問洪璇杓 李滿耆 全秀河 總務李消淳 沈澔植 十河 校長贊助員各里區長評議員

郡是製絲『蛹』 年一萬五千貫의
一般肥料로 供給코자 畜產聯合會에서 特約

大田郡是製絲工場에서는 現下酬絲繰業의 副產物로 每日多量의 蛹(번데기)을 得하야 一個月에 約七百貫의 產額으로 잇서도 明年三月外지는 三千七百貫을 產出할 豫測인 바 今回忠南畜產聯合會에서 此를 一般의 肥料로 供給하고 其外家豚飼料로 用할 計劃을 가지고 該社와 交涉한 結果 肥料價格에 換算하야 賣買價格을 十貫匁四圓外에 叺代十五錢으로 定하고 今後同工場의 產出하는 蛹을 一手特約의 契約을 行하얏는데 同蛹은 一日平均百五十匁乃至二百匁 는 豚을 飼하면 肥料的 飼料가 되고 又果樹蔬菜等 肥料는 勿論 鶏防도 또한 石鹼原料로 重用되는 것임으로 그 需用의 途가 多한 貌樣이며 同工場이 明年부터 三百釜를 增設하면 約八千貫의 生產이 增加될 뿐 아니라 將來는 一年一萬五千貫의 價格約六千圓을 生할 것임으로 聯合會에서는 目今引受하야 道內各方面의 希望者에게 頒布할 計劃이라 더라(大田)

△決議

一、會員勸誘의 件

二、善良會員表彰의 件 (同隻 成外五人)

三、夜學設置의 件

四、體育部에 關한 件 (勞働者에 限하야)

五、喪葬에 關한 一切

六、委員及組員選擧의 件

(江景)

江景勞働靑年 定期總會開催

忠南江景에 잇는 勞働靑年會에서는 第一回定期總會를 去六日午前十一時부터 當地中町和興樓二階上에서 開催하고 李尙浩氏 司會下에 臨時書記에 趙烈氏가 被選되야 會員點名과 經過報告가 잇슨 後 左와 如한 決議事項에 잇섯고 特히 善良會員의 表彰이 잇섯스며 旣往狀況으로 午後三時頃에 閉會하엿는대 ……

有志熱議로 學級延長
校舍增築하는 板橋公普校

忠南舒川郡東面板橋公立普通學校는 從來四年制로 一般生徒는 四學年을 卒業하고 他校에 다시 入學치 아니하면 되지 아니함을 보든 一般面民側에서 遺憾으로 思하더니 今年五月頃에 該面面長朴性俊氏의 周旋으로 該面有志가 多數이 會合하야 當地公普校內에서 期成會를 組織하고 將來熟議를 다하야 活動하더니 今年陰九月二十八日에는 當地面事務所에서 多數한 有志가 十餘人士가 會合하야 該面馬垈里李泉氏의 開會로써 從來板橋公立普通學校六學年延長期成이 完定된 바 敎室增築準備에 對한 費用金을 二千圓으로 決定되고 增築費는 有志의 寄附를 밧게되야 그 發端으로 當面水城里申泰英氏로부터 一千圓의 寄附金을 自發的으로 밧게 되엿는바 不足千圓은 一般有志側에서 捐出하야 不日內로 敎室을 增築하게 되엿바 該校學生은 勿論이요 일반이 一般面民側에서도 該面面長朴性俊氏와 李泉氏와 申泰英氏의 熱誠과 申泰英氏의 寄附에 感謝함을 마지 안는다 더라(舒川)

晋州對馬山 野球對抗競技
十三對八點으로 晋州軍得勝

晋州軍과 全馬山軍은 去七日午後二時晋州第一公普校에서 野球試合을 開催하고 數千群衆의 拍手歡呼로 第四回外지는 馬山軍이 三點이나 得點하여 十分勝味를 뵈엿스나 第五回로부터 晋州軍이 回勝하여 結局最後九回에는 十三對八點으로 晋州軍이 得勝하여 同大會는 萬歲聲에 六時散會하엿다고(晋州)

上南川整理 道補助萬圓으로

馬山府의 朝鮮市街東部一帶를 貫通하는 上南川은 府의 預算으로 何等의 施設이 업시 아직 原始의 그대로 棄置해둠을 넘어 川流가 左右로 漫延되야 잇슴으로 住宅難에 싸진 多數의 貧民은 兩岸의 礪石地를 埋築하고 造築한 爲幕집이 左右에 櫛比하야 年年히 慘酷한 水害를 넘어 온다 함은 累累히 報道한 바 어니와 道의 補助一萬圓으로 工事에 着手코 져 去九日에 當地에 出張한 道員과 府技手가 現場을 踏査하고 計劃測量을 行하얏다 는 바 河川의 擴內를 填充하고 造成한 家屋은 모다 無條件으로 撤毁할터이라 하야 水波에 威脅을 밧든 一部貧民은 官權의 撤毁에 戰慄한다고(馬山)

利川各面聯合主催 利川學藝選獎
來十五日부터 開催

京畿利川, 水原, 安城, 振威, 龍仁 五郡聯合農林物產品評會는 利川郡各面聯合主催로 利川公立普通學校에서 來十五日부터 開催되야 十八日外지 四日間이라는 데 따러서 利川郡學藝品選獎會와 褒賞授興式이 有하리라 하며 餘興으로 脚戲大會와 連日 晝夜로 ……

露西亞人 多數越境入國
去月中의 現狀

去月中에 鴨綠江을 넘어 朝鮮으로 드러온 外國人은 百七十八名인 바 亦是露國人이 首位를 占하고 職業別로 보면 商人五十七名을 首位로 官吏十一名 敎師九名 技師九名 軍 ……

意味深長한 가갸날祝賀會
沙里院有志紀念講演

京義線沙里院에서는 지난 八日午後七時에 市內崇德學校內에서 『가갸날』祝賀會를 東亞, 朝鮮兩支局主催下에 開催하얏는데 定刻되자 沙里院有志靑年二十餘名이 參席하야 開會하고 먼저 金元璧氏가 登壇하야 『訓民正音의 價值』 라는 意味深長한 熱辯이 잇섯고 이에 對하야 『우리글의 發達』吳應千氏 『국문의 發達』에 對하야 모다 深刻한 感觸을 주는 熱辯이 잇슨 後 丁南淵, 尹宗林兩氏의 簡單한 緖論이 잇슴으로 圓滿하게 마치고 그다음 茶菓會에 入하야 여러가지 意見과 感想談의 交換으로 一般은 新生命의 躍動을 맛보는 김흔 印象을 어더가지고 同十時에 散會하얏다 더라(沙里院)

盈德知品面의 男女勞夜創立
有志의 後援으로

盈德郡知品面新陽洞은 英陽, 靑松方面으로 通行하는 道中이며 또한 山峽人士의 集中하는 新陽市場이 잇는 곳으로 至今 여태 敎養의 團體 가 업슴을 遺憾으로 생각하야 有志南炳垜, 金建鎬 諸氏의 發起로 지난 八月頃 부터 勞働夜學을 設立하야 五十餘名 男女勞働階級이 出席하야 學習한다는 바 特히 有志南炳垜氏는 自己집 客室을 빌려서 夜學校를 施設하엿스며 先生及科目은 如左하다 더라(盈德)

先生 南九炳 南佑朝 南箕炳

科目 算術 朝鮮語 日語 漢文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uesday, Nov. 9th, 1926.

WHY ANTI-FOREIGNISM GROWS IN CHINA
By THOMAS F. MILLARD

IV

Beyond doubt many foreigners by their conduct and occupations in China do contribute to and aggravate anti-foreignism. We have just had an example of that in Shanghai.

LAWYERS' INCOMES ENDANGERED

A few weeks ago it became known that a provisional agreement for rendition of the Shanghai Mixed Court to Chinese authority had been reached by a committee of the local foreign Consular body and local Chinese representatives. The text of that provisional agreement, which was then not completed, was published prematurely! Whereupon a number of foreign lawyers here whose practice in the Mixed Court may be stopped or limited by rendition on these terms held meetings, passed resolutions opposing rendition and supported their arguments by drastically criticizing Chinese administration of justice. Foreign lawyers whose income are likely to be affected by a return of the Mixed Court to Chinese stauute (as it was prior to 1911) number over 100.

I sympathize with the personal predicament of these foreign lawyers, many of whom are my friends; and in this case I am commenting on their attitude chiefly as to its effects on the whole foreign position.

英文欄

中國의 排外思想理由 (續)

咸興에서 禁止
날이 不吉하다고

咸南咸興郡에서는 各社會運動團體가 聯合하야 露西亞革命紀念日에 紀念講演을 開催하기로 決定되엿든 바 咸興警察署에서는 그 날이 매우 不吉할 날이라고 禁止한다 하야 講演會는 不得已 禁止되고 말앗다 더라(咸興)

開催될모양이고 市靑年會에는 團旗와 花環을 또 一新케 한다 더라(利川)

綾州金融近況
金融組合으로 본 十月外지 預金狀況

全南綾州金融組合에서 取扱한 十月末日外지의 金融近況은 左와 如하다 더라(綾州)

預金 二六千三八七圓五二錢

回收金 二五、二四三、〇〇

貸付金 一一五、八六九、四四

文盲打破運動
善山龜尾面 蓬谷勞働夜學 有志發起로 組織

慶北善山郡龜尾面蓬谷洞에 無產農民敎育機關이 업슴으로 이를 크게 遺憾으로 생각하든 同洞有志朴旅來, 朴淳, 朴喜穆等 諸氏의 發起로 蓬谷勞働夜學會를 組織하엿는데 前記諸氏와 龜尾普通學校를 卒業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農村에서 活動하는 朴太乙, 朴喜龍, 朴昌夏 諸君의 必死的 活動으로 每夜通學하는 生徒가 男子가 三十名이오 女子가 十五名인데 同夜學敎師四君은 無報酬로 每夜敎授한다 하며 將來가 매우 有望하고 一般의 稱頌이 놉흔데 實任敎師諸君의 芳名은 左와 如하다 더라

朴喜龍 朴太乙 朴喜穆 朴昌夏

(龜尾)

礪山同友會의 勞働夜學會
十一月一日부터

全北礪山同友會에서는 無產兒童의 敎養을 目的하고 지난 十一月一日부터 勞働夜學을 開催하얏는데 生徒는 六十餘名이고 講師와 科目은 如左하다고

講師(無報酬) 李煥 陳小夏

科目 朝鮮語 日語 算術(裡里)

喪輿契員篤志 學院에 寄附金

平南德川郡蠶上面陶谷里喪輿契員들은 當地大同學院의 經濟困難을 痛感하야 지난 六日에 契員總會를 開催하고 資本金四百餘圓中에 現金二百圓을 그 學院에 寄附하엿다는데 稱頌이 藉藉하다 더라(德川)

元山市場物價

元山客主組合에서 今月九日에 元山市場物價調査를 한 바에 依하면 如左하다 더라

糯米一斗上品三圓七十錢同中品三圓六十錢白米一斗上品三圓四十錢同中品三圓三十錢同下品二圓八十錢稗一斗上品二圓二十錢粟一斗上品二圓同中品二圓同中品一圓六十錢同下品一圓五十錢姿麥一斗普通二圓大豆一斗上品一圓四十錢同中品一圓二十錢小豆는斗上品一圓九十錢明太二十尾上品一圓二十錢同中品一圓同下品八十錢生牛牡牛一頭上品一百二十九圓同中品八十七五圓同下品四十五圓同牝牛一頭上品 百三十八圓同中品七十圓同下品三十圓豚改良種一頭上品十四圓同中品十一圓鷄在來種一首上品一圓二十錢同中品五十五錢同不品四十錢同改良種一首上品一圓四十錢同中品六十錢同下品五十錢鷄卵一個普通三錢(元山)

◇樂山浦物價 樂川浦市場의 去四日物價는 如左하다 더라

糯米上一斗三圓八十錢中一斗三圓六十五錢白米上一斗四圓中一斗三圓八十錢粟上一石十二圓五十錢中一石十二圓大麥上一斗八十錢中七十五錢大豆上一斗一圓六十錢中一圓五十錢小豆上一斗二圓五十錢中二圓四十錢叺一等一枚三十二錢二等一枚二十九錢等外十九錢 布木)金剛山十一圓煙管九圓軍艦八圓五十錢豚八圓八圓四十錢石油八圓牛牡上頭百二十圓中一頭百圓牝上一頭九十二圓中一頭八十圓豚牡上一首十八圓中一首十三圓牝上一首七圓鷄牡上一羽九十錢中一羽八十錢牝上一羽一圓中九十錢鷄卵一個上四錢中一個三錢五厘明太魚一本五錢生薑一束五錢蒿菜一束十錢白菜一束一錢(樂山浦)

牙山支局讀者優待

本報牙山支局에서는 多年間 本報를 愛讀하는 讀者 諸位의 厚意를 萬分一이라도 報答키 爲하야 溫陽溫泉陽郡海苔組合員多數가 光陽郡廳에 殺到하야 ……泉驛前昌信理髮所主人成樂瑛氏와 協同으로 割引理髮券을 發行하라 는데 各各十錢式 割引할 터이라 더라(牙山)

芙江支局投書函

本報芙江支局에서는 當地一般民情을 詳細히 알기 爲하야 其他 숨은 事實을 探聞하기 爲하야 今十日부터 左記場所에 投書函을 設置하얏다는 데 一般은 多數投稿하야 주기를 바란다 더라(芙江)

◇投書注意

投書에는 匿名이라도 本支局에서 調査하기 容易하도록 資料를 充分히 記入하며 住所氏名을 明記함을 要함

◇設置場所

第一號 鄭興元家倉庫前

第二號 任昌鎬運送店後

地方團體動靜

◇德川郡造林獎勵 平南德川郡에서는 造林獎勵를 하는 同時에 燃料를 節約케 하기 爲하야 溫突改良焚口를 鐵工場에 廉價로 購入하야 各面各里에 分配하엿다고(德川)

靑年會名稱變更

善山郡長川面同和靑年會는 名稱을 長川靑年會로 變更하엿다고

◇李氏美擧 金浦郡郡內面豊舞里사는 李蕘哲氏는 每年春窮을 當하면 極貧者들의 戶稅를 代納하는 等 其外에는 無產者를 爲하야 極力探助함으로 一般의 稱頌을 바 더오든 바 特히 今年秋收期에는 一般小作人의 事情을 살피여 小作人들의 要求대로 小作料를 徵收함으로 一般小作人들은 李地主의 厚意를 稱頌한다 더라(金浦)

◇德川沙屯夜學講座 平南德川郡沙屯面에서는 年例에 依하야 지난 一日부터 開學하고 每日晩마다 新聞講座를 開催한다는 데 講師는 鄭在夏, 趙秉曄兩氏라 하며 夜學生은 現在二十五名이라고(德川)

◇德川改良種炭生 平安南道主催로 德川地方에서 改良種炭講習生十名을 지난 六日外지 募集하얏다는데 講習期間은 一個月間이오 日給은 六拾錢式이라고(德川)

◇寸 鐵◇

【楊市】 市內中央道路가 三年前에 開通된 것을 責任者인 道當局에서는 于今復舊도 아니하야 市民은 勿論 一般通行人의 不便이 여간 아니라 한다 道當局者는 무엇으로 그 怠慢을 辨明하려는가

◇

【馬山】 府民一般이 急急히 바라든 上南川整理는 漫漫에 實現할 터이라는데 河川構內兩岸에 築造한 茅屋은 無條件으로 撤毁할터이라고 水波의 威脅을 免한 貧民이 또 官權압헤 서울고 잇다

◇

【德川】 德川郡沙屯市大同學院에는 頑固한 父母모르게 入學을 願한 生徒三人이 잇섯다 可尙한 少年習讀慾의 一發露

社告

◇取消 = 九月二十九日附 本報第二一七一號一版一面에 記載된 光陽郡海苔組合員多數가 光陽郡廳에 殺到하야 海苔木拂金問題와 其他組合革新等問題로 云云의 記事는 事實의 相違가 만흐며 더욱 郡守의 問答은 全然事實相違이라 는 取消申請이 關係者로부터 잇섯기 이에 取消함

◇取消 = 大正十五年六月八日附 本報第二千五十八號第一面 『新炭費濫用 此南面民不平』이라 題한 記事는 事實相違함으로 玆에 取消함

社告

今般 本支局에서 左와 如히 局員을 採用하얏사오니 愛讀者諸位는 以此照亮하소서

記者 金一

朝鮮日報群山支局 白

一、支局의 名稱 江界支局

一、支局의 管轄區域 江界郡一圓

一、支局의 位置 江界郡邑內東部洞八九八

一、支局員의 氏名

支局長 洪宇龍

總務 金澤烈

記者 金兄元

記者 白聖奎

記者 劉漢龍

顧問 劉信鎭

顧問 金錫璉

顧問 宋泰用

右와 如히 江界支局을 變更하얏기 社告함

朝鮮日報社 白

學生萬歲事件 來十七日로延期
법정의관계로부득이 오후세시에야연긔해
終日空待者가數十人

석간긔보=순종(純宗)인산당일에 대여(大轝)모신 행렬이관수교(觀水橋)를 통과하얏슬때에 돌연히 조선○○만세를 놉히불러 세상의이목을 놀래인학생만세사건의 공판은 지난이일과삼일에 경성디방법원 데삼호법정에서 강동(江藤)재판장의 단독심리와 리견(里見)검사의 립회로열엇는데 검사의 구형중에특히피고중 리병립(李炳立)은 조선공산당사건(朝鮮共產黨事件)과 관계잇슴을 자긔가아는터이라하고징역삼년을구형(求刑)한일외지잇서 반세사건의피고학생들에게대한궁금하마음이일반으로가득하엿든모양인바 그들의판결을 언도한다고하든 십일에는 이와가튼 궁거운마음을품고 겸하야 금호문사건의 송학선(宋學先)의언도를 들으라는 방텅인들이 구름가티 모혀들엇다함은 석간에이미보도 하엿거니와 십일은 권긔와가티 복심법원과 디방법원이모다 방텅인들을 쓰게되얏슴으로 학생사건은 오후에언도코자하얏스나 사정상 할수업시 오후세시 사십분에 일으러서야 오는십칠일로 연긔하얏는데 이로인하야 아츰부터 오후세시까지 춥고배곱흠을 참아가며 종일섯다가 그대로돌아간 방텅인이 수십명 이엇섯다

仁川斗量場 三百名人夫盟罷
임금을종전대로올려달라고 객주조합에요구하다못해서

인천영신(永信)일신(日新)량조의인부노이컨객주조합(客主組合)에 채용되여잇는삼백명의인부는 약일개월전부터 하륙(下陸)임금을일할깍근으로『마와세』임금을칠전으로 또는출입고(出入庫)임금삼전을이전으로 종전과가티 올려달라고 요구하엿스며 또그외에 검사미(檢査米)『마와세』임금으로칠리를 달라고 요구 하엿섯는데지난팔일에 객주조합으로부터 선언하기를『마와세』임금은청구에응하나 기타는 응할수업다고 함으로권긔인부들은 지난구일부터 동맹파업을 하엿다한다 이로인하야 이미하륙한 오륙천석의 정조와 범선(帆船)일백이십척에실려잇는 륙칠천석의 정조가전부이동되지못하고 이문데가 해결되기까지 그대로 잇게됨으로시세에도만흔관계가 될뿐아니라 객주조합을 비롯하야 권긔량조(兩組) 또는곡주(穀主)에게까지비상한 손해가 미치리라고일반려론이비등하다더라

咸興署刑事 元山서活動

함흥경찰서(咸興警察署)의화뎐(和田)경부보와 동서 김형사는 지난구일아츰원산에 와서 원산경찰서의 소도(小島)사법주임과 무슨일인지 구수회의를한후 원산서 형사대의 응원을어더가지고 모방면을탐하야 활동중이라는데 들은바에의하면 함흥에서조선은행지폐(朝鮮銀行紙幣)의 위조를대계획하든일파가 원산모방면에 잠복한 형적이잇다하야 아연히활동을 개시한듯 하다고(원산)

翰興鑛業所에 一大風波惹起

함남영흥군진평면한동리(咸南永興郡鎭坪面翰洞里)에잇는한흥금광업소(翰興金鑛業所)에서는 지난이일오전팔시경에광동업자간에 일대풍파가 이러낫다는데 이제그내용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본래부터 이광산을황해도안악(黃海道安岳)에잇는원성환(元成煥)씨가 경영하고 잇섯든바 금년삼월에이르러 진남포(鎭南浦)에잇는리용련(李容鍊)씨와동업을하게되는동시에동업자가 다섯사람이 되게되야황해도안악에잇는 권긔 원성환씨와 원이건(元滋健)씨와허윤(許潤)씨와 및신천(信川)군에 잇는황필연(黃弼淵)씨도합오명이엇는바 금년오월부터 지난십월말일까지에 영업결산을 하게되는동시에 권긔리용련씨는 본광산의대표자로 한상광업소에 잇섯고 권긔네사람은 각각 집에도라가 잇다가 몃날전에야 도뒤여그간에 여엇난결산을 보게되여따라 비로소 한자석에 모여안저결산을보든바 그간에산출금액(產出金額)이일만삼백여원이요그사이의총경비가일만오천오백원이지출되엿스나 결국 손해가낫슴으로 동업자간에 각기분담하여야 하겟다고권긔대표자는 말을 맛마추는동시에 본래부터 석겨이랑호하던터라 온세상이 아는광산에서손해를 보앗다는문서에 흑내막이잇나하야권긔원이건(元滋健)씨는 본문서를가지고 여러가지언쟁을하든끗테 이문서는 사긔의문서라고하며 어데까지던지 증빙서류라하야 이문서를 가지고 당장도 어데로가버리고 말엇슴으로 권긔광업대표자인 리용련씨는 당일밤으로 소관경찰서에문서를 입혀도주하엿다는 고발을하자 소관경찰서에서는 권긔원이건씨를 수색하기에 로력한결과 밤새로두시경에 권긔원씨를맛나 경찰서에서 문서를압수하야 보관중에 잇다는바압날의 경로는 더욱분규될모양이라더라(영흥)

◇…사리원에열린가갸날의넘…◇

陳情書直接提出
사령관『다스도』소장을못하야
◇救世軍內訌後聞◇

조선구세군영(朝鮮救世軍營)에서 양사람사관과 조선사람 병사와 사관사이에 추태의분규가 연출되엿다함은 루차 보도한바어니와 이제조선사람사관급 병사측의 진정서는 드듸여지난십일오전십시에 시내 죽첨뎡(竹添町)삼정목구세군대영에서 사령관『다스도』소장을 통하야『써ㅣ드』대장에게 보이게되엿는바 이제그내용의 요령은다음과 갓다더라

◇陳情書

一、朝鮮救世軍도只今은十八年의歷史를가젓슴으로朝鮮人士官中其堅實하고正義의信仰을持한者에게本營에서參謀職을附與할일

二、本營에서쓰는每年收入支出金細目을年末에는公報發表하야一般에周知케할일

三、本營士官學校、地方營、育兒院及其他使用의一切帳簿를公文그대로하지말고朝鮮文으로翻譯하야英語를解치못하는士官等에게도救世軍의政策을示하야參謀士官이될수잇도록할일

四、士官學校長補는반듯이朝鮮人士官으로任命할일

五、地方營에補를두지안는대에職權도비리위하야每月報告를하야地方官과한가지로聯名捺印의報告를하야合意的으로할일

六、西洋人士官에게도朝鮮人의固有한道德風俗習慣과第一朝鮮語를理解하는才格이無한境遇에는朝鮮人士官으로地方官을任命할일

七、朝鮮人士官女子補助에對하야西洋人과日本人士官에比하야人種民族差別이明瞭함으로日本人士官과반듯이同케할일

八、朝鮮人地方官의部下에잇는西洋人擔任士官의月給을添附에地方官에게添附치안코秘密히添附함은何故오

九、李寅培正尉의決營相正尉의月給에對하야差別이잇슴을撤廢할일

十、參謀會日의變行事實은士官及兵士全部가周知하는바이며

十一、參謀止尉蘇西別은水害救濟金을橫領할뿐만아니라其夫人은事實을明言한旗官安敎轍을毆打하얏슴으로朝鮮으로부터退去케할일

十二、參領柳右烈은本營參謀士官으로서兵士를無條件으로毆打하얏슴으로歸還케할일

十三、參謀止尉宗位氏는自己의責任에對하야一正直하고堅實한士官임에도于今까지何等의表彰이업는일

十四、士官學校長參習道는性格과行動이一般學生에게惡感을與하야差別的行動이甚하고朝鮮人을無視함으로써校長의地位로부터逐出할일

十五、現今鮮人士官의生活이너머나困難함으로現給보다五割을引上할事

十六、現司令官杜永瑞氏는言語와行動이表面上司令官으로의才格이無하야鮮人에게重大한影響을波及함으로速히處置할事

十七、副官王居鎭은無故히鮮人士官을誣欺하야宗敎의名譽上重大한損害를與함으로速히處理할일

十八、依托할바업는士官의父母에對하야同居又는奉養케할일

十九、現潔에는東西人을不問하고出席할일

二十、特別資格者에限하야階級과地位를速히昇格할일

『이런일은 처음당한다』
써ㅣ드대장의말

별항과가티 진정서(陳情書)를 바든『써ㅣ드』대장은조선에서 말하되 계제를 도라단이엇스나 이러한 문데에 당한것은 이번이처음입니다 으로 진심으로분개합니다 진정서는 확실히받앗는데 내용은좀과격한폐단이잇는듯하나시비(是非)는 판명치못하겟는고로신중히조사한후 확답하라고하며 결코조치못하게는하지안켓습니다

國民協會支部長 紙幣僞造하려다逮捕
순사출신과공모하고서 지폐위조하려다발각돼

지난 륙일 오후열두시나되여서 함흥군 서호면(咸興郡西湖方面)으로부터 죄인사 오인을데포하야 자동차로 함흥경찰서에 인치하고 방금비밀리에엄중히 취조한다는데 이제들은바에의하면 권긔범인은 함흥군하동리사팔번디현직면평의원겸 국민협회함흥지부장김훈(咸興郡荷東里四八番地現職咸興面評議員兼國民協會咸興支部長金壎(三五))과 동군하서리이칠번디 권순사출신리주필(同郡荷西里李周弼(四一))과 경성방면에서왓다는 황모(黃某)외사오인으로서 그들은 위조지폐를만드러 사용하여보자는 공모로 평시부터김훈에게 출입하는 리주필이가 현시신상에와잇든지폐만드는기술이잇다는 권긔경성황모를소개하야 신상에서 세사람이서로 맛나게되엿는데 지폐만드는 긔계와 조히를수입하고저 세사람은한께 경성익선동 훈농해려관(京城益善洞青海旅館)에 머물더잇스면서 사백원어치의 긔구를사드러 다시안동현(安東縣)으로 갈때에 김훈은 신의주(新義州)에 잇고 리주필과 황모는김훈에게서 돈보천이백원을가지고 안동현에가서 조히등속을 사가지고 지난오월두음에함흥에와서남모르게계획을하여오는바 경찰에서 산뿔을대임도 실지는 삼십원에서 오륙원어치밧게는 못되고 안동현에서산 일화이백원이라는것도 사실은 삼백오십원밧게 못되는데 리주필과 황모가 김훈을속인것이 나타나게되야 리주필은 김훈에게 탈폐오십원 차유중에서 하엿다는데 그후에 또리주필과황모는다시 서울을가서 황모를사오겟스니 돈을내라하며 또한셋을에 기술자가잇스니 가서다려오자는 요구가 잇슴으로 김훈은의사가 맛지아니하엿든지 김훈의 집에서서로 겨루어지이러나서 지게를메여처는동 소동이 잇섯는데 그때는 유럽지나첨월 이십일경이라하며 이런사실을알게된 함흥경찰서에서는 지난 오일오후 아홉시나되여 김훈을 체포하야 취됴하다가 김훈의사전에잇이가엿든지 순사와함께 김훈의집까지 나오게됨을 긔회로하야 권긔김훈는 즉시서호방면으로 도망하엿든바 함흥서에서는뒤를딸아 서호서두선(西湖徐斗先)의집에잠복하고잇든 김훈 리주필외사오인을체포하야 륙일오후 열두시에자동차노 함흥서에인치하는 동시에 칠일아츰에 리경부는 김훈의집을 수색하야 만흔긔계등을 압수하는 동시에 리주필의집까지 가택수색을엄중히 하엿다는데 범인중에는 함흥군삼평면한모(咸興郡三平面韓某)와시내하서리김모(市內荷西里金某)도 잇다더라(함흥)

美人탄自働車에 劍光閃閃한活劇
≡장기로다려다의남매를정하고서≡
惡魔窟脫出한金仙玉의哀話

◇……산골살림 부는 가을바람이사람의웃것을 시치고 썰어가려하는찬빗이 지려하든 단풍의빗파어울려 뫼를노리 밝게캐를되든지난칠일 오후 다섯시쯤되여해주남본정(海州南本町)직거자동차부(織居自働車部)압헤는 바싯바싯 피여나는 꼿봉오리가 튼미안한아이 라고잇는 자동차를만흔군중이삼사시겹으로에워쌋고 그속으로는 눈빗가튼칼날이혼날리는일대활비극이잇섯다

◇……이녀자는 평양부 신양리(平壤府新陽里)일백팔번디에사는리은봉(李銀鋒)이란로파의손녀김선옥(金仙玉)(一九)이다선옥이가 본래빈궁 가뎡에 태여나고겸하야 부모의따뜻한 사랑을오래밧지 못하야 오죽흠은할머니와 외로운두몸이 서로의지하야실낫가튼목숨을보전하야왓다

모질손세상의풍파는선옥의조손의 그러틋 비참한생활이나마유지못하게 뒤흔들어 할머니와를까지 떠나지아노하면 안되게되엿다 할수업시 오년전선옥의열다섯에에해주읍남본뎡(南本町)이산삼번디 해주관(海州館)이란 료리뎜으로 팔려오게되엿다

◇……팔려올때에 그료리뎜 주인최양선(崔陽善)이란자에게금백원을밧고 칠년뒤한하고 창기노릇을 하야주되 만약칠년이내에창ㄴ간 위약이잇스면 위약금일천원을 준다는구든 계약까지체결하얏섯다 이야말로 순결한선옥이가아조 디옥으로끌리는악착한길이다!이러틋선옥을쇠간미천으로 알고사온 최양선은수양딸이란 이름을정하고 매음을시킨다

◇……아모리 가난한사정에 내여나 모진고생을 겪글네 적근선옥이엇마는 오히려 할머니의품에안기여 울고웃는것은 자유로하얏지마는 이제와서는 꼿주간에도례간 소모양이되고 말앗다 우악한탕자의손길이 선옥의가슴에 갓가워질때에는 고만천근가튼바위가 내려누르는것 가타야 숨길이탁막히고 말뿐이다 이러틋 에 신롬이날반틈만 고통을당하것마는『심허』소리 한번못지르고 낭냥참아울뿐이다밤새도록 못사람에게 짓밟히다가나셀녁에 자는동마는동 밤을지내고나서 그래도 또손을보라고 야우여가는얼굴을 분으로맥구ㅆ케 정말하노가 백년가티지긋지긋 하얏스리라!

◇……악마의 지휘라할가? 선옥의운명이 긔구타할가? 그런 고통중에 지나는 선옥의몸에는더한층 심한고통이 더허놀혓스니 삼년전부터 최양선의아들선옥의 수양오나비 승훈(承勳)이가 선옥의아릿다움에 고만취하야가지고사회에서드려보지못할추한요구를 선옥에게 하기시작한다『죽으면죽엇지못하겟다』 … 이옥의마음에서화화일어거블하기도여러번이엇지마는육심에가려운승훈은회개할줄을모르고구지구지졍을한다약한손녀자의마음이라한편에이러케주의마음이이는한편에이러고생을거역하고내둘에뎌고생엇지힘고하는무서운상상도머리우로솟으 떠오른다열나엔 넘어갈나무업다고 결국승훈의 요구를 드를수밧게업게되엿다

◇……이름이라도남매의명분을정하고서 그런케 추한관계를맷게되니 몸수가든 승훈이도방심에 북그려움은 업지안핫스리라!결국 죄악의씨가 매치어선옥이가 아이를나케되니 가얼굴이 확근확근하지 안흘수업다 결국남의이목을 가리우려고선옥을 몽봄내중정(中町)어던으숙사집에 보내여 해복케하얏든바 아이는나흔후에는 젓도못먹이게하고 우유를 먹여기르게하든중 그아이는 한일에를시난지이틀반에 애처로이도 죽고말앗스니 올케낫는 꿀케낫든 몰간지정에 첫노 못먹여보고일허버리게되니 산모인 선옥의마음은오죽쇠거시는듯하얏슬가

◇……그러나 롱속에 가친새의몸이라 이런사정커렌 이약이나할곳이 어디엔가? 오죽격격한빈방에서 새동새동 말러가는업플이 외로운운동을 작하야하엿더라 그리든차에 련행으로이소식이 자긔할머니의귀에 들리우자 손녀의 고생에두운이 알과뒤집히여 닷자곳자로해주에 달려와서 내손녀를창기로 칠면괴한하엿것은것이지 며누리로 다려고다려온것이아니니 위약은 너희가먼저하얏다는고로선옥을 불고나와서 평양으로 가라고 자동차를타게되엿다

◇……그러틋 인간에 돌도업는 죄를지은 최가이엇마는 선옥을 노커보내기는 실혓든지 별별수단을 다하야가며 못가게커힘하얏스나 동리사람들의 원조를어더 자동차까지는 타고나니 승훈의아들 명식(榮植)이란자가 권과가티 단도를 휘두르며자동차에서 행악하는통에 구경군도 상한이가잇고 선옥의조모도 경상을당하엿는데 가기는간 선옥의 장래가또다시 어찌될는지

對岸國境方面의 露中間通信杜絶
로서아측에서중국측에돌연 련락사무취급을거절한결과

대안로중국경방면(對岸露中國境方面)의 로중간우편사무(露中間郵便事務)의련락은 종래로 중국측에잇서서는 연추국(煙秋局)에서 취급하여섯든바 로국측은돌연련락사무취급을거절할것을통고하엿슴으로 로국과 중국간통신이 전혀두절되엿다더라

寄附募集紛忙
보통학교신축코저

전남라주군동강면(全南羅州郡洞江面)에서는 면민일반이본면에는 보통학교도 업다고하야학교를 신축하야긔부금 모집에더 활동중이라는데 이제 그내용을 들은즉 지난구월십이일 에면민대회를개최한 당시에 보교신축속성고성회를 조직하고 좌긔의임원을선거하엿다고(라주)

委員長 吳在學 副委員長 柳相文 顧問 曹良傍 林炳杜 朴圭相 執行委員 金吉洙 崔鶴銘 金文和 會計部 林璿圭 曹圭喆

全慶山 陸上競技大會
대성황으로마추어

긔보=경산군교육회주최인데 일회육상경기대회(慶山郡教育會主催第一回陸上競技大會)는 예뎡한 보월칠일오전 구시에 경산공립보통학교(慶山公普校)운동장에서 각학교선수 입장후동회회장조정환(曹正煥)씨개회식사로서 개회되야 각학교의응원가는 산천을요란케하며 수천의 래빈들의 박수와갈채성은 장내가 진동케하는중 이십종의경기종목을 유감업시 무사히진행하니 때는하오오시더라(경산)

市內各公設市場의 十月中販賣總額
총계사백사십칠원

시내각공설시장(市內公設市場)십월중의매상총고(賣上總高)는 구만오천사백사십칠원으로서매인평균하면 삼천칠십팔원으로십월에당하는바이제각시장은다음과갓다더라

場所	賣上金額	前年比較
明治町	四五、五九三	增 九、六五七
花園町	三一、四五一	減 五五三
龍山	一四、六六九	減 一、一五六
計	八三、四〇八	
安國洞	一、六六三	增 一〇九
敎義洞	三、四〇四	增 一、六五五
西大門	三、一五五	減 二〇四
瑞麟洞	四、八三一	增 四、八三一
計	一三、〇五〇	

結婚不應한 十四歲處女
알지못할승혼이라고

평북박천군청룡면대화동오백오십칠번디장숙봉(平北博川郡青龍面大化洞五五七番地張淑鳳(三三))의장녀선현(善賢)이라는당년십사세된 꼿다운처녀는 매우 집이 가난함으로부터 자긔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약사년전에 가정업시 집을떠나고 모친과어린아우와살아오든중 더욱 더욱 생활이곤난하야가는이때에결혼하자재촉함으로 거절을 하엿다는데、그사실을됴사한바에 의하면 선현의부친이 집을떠나기전에 녕변군봉산면구산동 김누성의장남(寧邊郡鳳山面九山洞金亂星長男)당년 열네살먹은아이와 약혼을하고 대금(代金)으로 일백원을바덧다는바 김씨집에서는 결혼식을하기위하야 선현의조부에게 편지거래를하고 지난일일에 김씨집으로부터 선현의집에례물(禮物)을보냇슴으로 선현의모녀는 풍편에 말을들엇섯지만 허혼하여준일이업피 선현의부친은 집을떠난지가 발서 사년이나되고 소식조차 업는데 이가튼례물은 부당하다고 당장에거절을하엿스나례물을가지고 온하인은 억지로도망하고도 선현이와 그의모친은 그날부터사흘동안이나 식음을전폐하고 선현이는 그냥학교에만 잘나니다가 그의모친은할수업시 박천경찰서(博川警察署)에사실을말하고 례물을처치하여달라는 고소를제기하엿다는데 경찰당국은 말하되 례물은 그냥보관하여두고 신랑이만일 장가를오거든곳 괴별하면 처치하여주마고 하엿다는데 一반은매우 주목중이라더라(령미)

開天節慶賀式

지난칠일은 음력십월삼일인 우리조선민족의시조단군(檀君)이 태백산단목하(太白山檀木下)에서 탄강하신개천절(開天節)인바 고성면덕선리(固城面德仙里)에잇는 천도교종리원에서는 해마다 의미잇게 긔념하는터인데 금년에도례년과갓치 더일층성대한경하식(慶賀式)을거행하게되엿는데 데이 다방청년과 졸업생합오십여명이 참석하야 각종의운동으로도 이날을경배(敬拜)하엿다더라(고성)

在京婦人運動者 懇親會開催
오는십사일에

시내경성녀자청년회(京城女子青年會)에서는 재경부인운동자간친회(在京婦人運動者懇親會)를개최하기로 결의하엿는데 시일(時日)과 장소(場所)는 다음과갓다더라

時日 十一月十四日午前十一時

場所 市內苑洞京城女子青年會館內

討議件 婦人運動의統一과組織에對하야

會費二十錢

金氏家에財產爭奪戰 媤叔걸어告訴提起
민사소송서데형사문데까지 財產이나흔家庭戰爭

김포읍내(金浦邑內) 고김상묵(故金尙默)씨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재산분쟁사건으로 말미암아 삼사촌간에 가진추태를 연출시킨다함은 이미세상에서 놀리아는바어니와 근일에 일으러는 문데가더욱 확대되야 필경은형망인 류노아(柳老娥)가 그의시동생인 김중묵(金重默)을 상대로 그의불법행동과 여러가지범죄사실들을들어 김포경찰서(金浦署)에고소를제긔 하얏다는데이제그고소의내용을 대강듯건대원들은이모작년팔월경에김씨가사망하매그의친족간에서김상묵의셋재아우의 아들 금년세살된어린아이를 립후로 뎡한후재산상속까지 그아들에게 시키여노코는 김상묵씨 미망인류노아가당연한 친권자임도 불구하고그의친족간에서는 친권류노아를 은근히 배척하는동시에 류노아에대한 권리까지 빼아스려하야류노아와 김중묵간에 가진추태를 연출하다가 결국 재판문데까지 일으러 경성부 청엽뎡(京城府青葉町)에사는김중묵의사촌김정묵(金貞默)이가권긔류노아를 상대로 류노아에대한 친권을상실식여달라는 소송을 제긔하얏슴으로 오래전부터 경성디방법원(京城地方法院)을비롯하야 복심법원에 일으기까지 수십회의 구두변논이 잇섯고아즉도 계속하야 각소작인과결탁을하야 가지고 금년추수까지 전부몰수하려함으로 류노아는이에 분괴하야 김중묵에대한 여러가지불법행위를들어 수일전에 당디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것이라는데 그리면에는 여러가지 범죄사실이 잠재하야잇는듯하다는바 장차취됴를따라 권긔사실이 폭로되리라더라(김포)

日本山陽線急行列車 顚覆事件公判開廷
피고들은모도다극력 과실이업다고주장해

지난구월십삼일 일본산양선등급렬차전복사건으로 과소된광도보선구주임산전정삼(廣島保線區主任山田楠三(三六))보선수만전괴(保線手滿田晃己(三五))조두구요래랑(組頭久田要太郎)외삼명에관한업무상과실기차전복파괴치사상사건(業務上過失汽車顚覆破壞致死傷事件)의공판은 십일광도 구재판소에서 개정되엿는데 렬도가생긴이래 처음되는 대참사임으로 방텅인가만엇스며 빈구검사(濱口檢事)의 공소사실의진술에대하야 심리(審理)에드러가 권긔세명이 모다 극력과실이 업슴을주장하고 정오에위선 휴게하엿더라(광도)

固城農組委員會

경남고성농민조합(固城農民組合)은 지난십월삼십일일에 창립되엿다함은 긔보와갓거니와 지난륙일 오후세시에 고성상무회의소(固城商務會)에서중앙집행위원회를열고 의장 권두상(千斗上)씨와 권갑봉(全甲奉)씨가 추천되여 의사를진행하야 조선로동총농맹에 가맹할것과 순회강연을 삼일부터 이머보조직하야 순회강연할것외 여러가지를 결의하얏다고(고성)

不正選擧 調查코저
황주긔자회의

황주군 각면에서는 면제에의하야 제이회 면협의회원의 임긔가 만료되엿슴으로 금월사일에 제삼회면협의회원을 총개선하게되엿슴으로 미리부터 황주군당국에서는 각면 면장에게 금번 선거는장래의 완전한자치제도실시에 대할법으로 선거한다하야 제이회면협의회원 선거까지는 면내일년이상 주재하고 호세부과금 오원이상을납부하는자라야 면협의회원될 자격이 잇고 또는선거할 자격이잇섯는데 금번에는일본서보선법(普選法)비슷한모양으로 면제시행규측제륙조삼항(面制施行規則第六條三項)에관한 금치산자와준금치산자 륙개년이상 징역자 금고이상 데형을바든자(이개년간금고를당한자를 말함)호주로 이십오세미만자와 녀자로 호주된자(禁治產者 準禁治產者 六年以上懲役 禁錮以上體刑(二個年間禁錮者) 戶主二十五歲未滿者 女子)이외에는 누구를물론하고 선거권이잇고 피선거권은 역시호세부과금을 일년에오원이상납부한자라야 피선권이잇게되엿스나 각기추천자는 한사람이라도 기권자를생기지아니하도록하야 선거하되 일반면민이모히여 선거할것이로되 집회가곤난하며 더욱이 시일이급박하야 각면에서는 각리마다십인이상십오인이내에면장이나구장이 간섭지말고선거대표인을리민이 선하야면협의회원을선거하도록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하며또는 면장이군당국에오면 즉접 말노도지시하얏는데 이에대하야 각면에서는지시대로시행치아니하엿다는 여론이잇슴으로 황주에잇는각신문 긔자는반 여론을 들더히됴사하기위하야지난구일 오전십이시에 황주도서관 내에서황주군 긔자회의를 개최하고 각면에서 군당국에서 지시한바도시행여부를오는십오일내로하기로 하고또는압흐로 취할방침을 토의한후 오후두시반에산회하엿는데 각기마튼 됴사구역은 아래와갓더라(황주)

黑橋 天柱 淸水三面 趙奎亨

兼二浦 松林 九聖三面 孔國鎭

青龍 州南 二面 桂犟振

永登 三田 二面 金世鉉

龜洛 仁橋 二面 李應吉

죽엄도 가지가지

母子가轉轉乞食타가 愛子膝上에慘死
흥업회사의문압길우에

지난팔일 오전열시 시드런진풀닙에서리도 채마르지안코 목척(木尺)내스바람이 살을 에이는듯이 치운것도불구하고 대전영정(大田榮町)조선흥업회사(朝鮮興業會社)의 추수(秋收)밧는 도조장(賭租場)압길가에서엇더한 사십여세나되여보이는 허버슨녀자한사람이 이십세 가량되는 더벙머리 총각(總角)의무릅(膝)을빈채노 커참는 눈물을머금고 이세상을떠나게된 동시에 무릅을베인 총각의 우는소리가 한참동안 오는사람 가는사람의 간장을 녹일듯이 애연하얏는데 그원인을드른즉 죽은녀자는 충북옥천군 안남면(忠北沃川郡安南面)방려란곳에사는황선달(黃善達)의 안해 조씨(趙氏)(四八)이오 총각은 그의아들되는 롱권(龍權)(二九)인바 거금이해에 남편은죽고 모자가서로의지해가면서 살다가 원악살림이 구차하야사라갈길이 곤난함에 롱권은결국어머니를 다리고 벗이조흔곳에가서 지게품파리라도해서 목숨을 살려볼가하는생각으로지난음력칠월초순에어머니를 모시고 대뎐(大田)에와서 풍찬로숙(風餐露宿)을하면서지게품도팔고 혹은 이집저집다니면서 한술두술 어더다가근근히 생명을 보존해오든바 마츰일긔가졸한하야 어머니되는 조씨가 몃칠전부터 독감에 신음하나약한첩쓰지못하고 병은 점점심하야몸을자유로 옴기지 못하게되매 롱권는부득이 다죽어가는 어머니를업고 이집저집 다니면서조석을빌어 보호하다가 이시각을 다투게되여 할수업시이곳저곳으로 방황하면서 따뜻한곳을 구하다가 마츰내권긔흥업회사 도조밧는 문압해서 그와가티 비참한죽음을 이룰것이라하며 따라서 장소가장소라고부자집문압헤서 그와가티 죽게됨에도로에왕래하는사람이며 도조가지고온사람들이삼지사방으로 돌려서서 눈물반솜반으로신곡(新穀)이 쿼와가티 쌀엿스되 형벌한 그릇먹지못하고 이세상을 떠낫구나 하면서악착한세상을 원망하기커하고도라섯스며시테는경찰서에서인수하야 공의(公醫)의 진단을 다친후에 공동묘디에매장하얏다더라(대뎐)

機關車에轢死
자살인가타살인가

지난팔일 오후십일시 십오분경원산역구내(元山驛構內)에서경성행렬차와 긔관차데오선에 삼십오륙세가량 되여보이는 조선인지년이 무참히 갈려죽엇다는데 급보가 잇기때문에 원산경찰서(元山署)로부터송(宋)경부보가 평뎐(平田)공의를 대동하고 현장에 달려가서 시테를검시한결과 유류품(遺留品)이라고는별로 업고 다만 안덕수(安德守)라는 명함을 가졋슬뿐인데 자살인지혹은과실인지목하됴사중이라더라(원산)

祭祀지나고 돌아오다溺死

지난칠일 오전네시경에 달성군가창면냉천동(達城郡嘉昌面冷泉洞)김양수(金陽秀)는 그날밤에비가옴으로 불어두엇든 벼를드려노으려고 나갓든바 마츰부르렁에서 사람살리라는소리가 남으로 가서건저내엿는데 그는동리칠번디 서우긔(徐羽基)로 판명되바 그는그의친족의제사에 참예하고 돌아오는길에 어두워길을 잘못걷다가 우물에빠저죽엇다고(대구)

八千圓 橫領說出處
그리면의사실

근일부내 몃몃신문지상에 부내토의동(土城洞)사는변호사리종성(李宗聖)씨의 사무원 신일호(辛日鎬)가시골부자를속여 팔천원의 거액을 사취하얏다는 긔사가잇섯는데 이게그러한 소문이나게된 리면의사실을 들은즉 권긔신일호에게 피해를하얏다는 시골부자강화군 선원면신정리(江華郡仙源面神井里)리한묵(李漢黙)의친권자조련희(趙蓮熙)가금년칠월경에변호사 리종성씨에게 엇더한소송사건한아를 위임하엿스나 리변호사는 소송비용을 주지안는까닭에 사건에착수치못하든중 조련희는 다시그사건을 일본인변호사중립부조(中込富造)씨에게 위임하야 그소유토디를 서병후(徐丙厚)에게 사천원에 저당하고 먼저일천팔백원을바더서 그것으로 소송비용을쓰고 리변호사는그사건을단념하고잇는차에또다시리한묵의 장인과팔촌되는사람이 리변호사에게 가서 생겨 할수업게되엿스니 사건을 다시마터 속히진행하여달라 하엿스나 역시착수할비용은 주지아니 하엿는데 중립변호사는 리한묵의 토디를 서병후에게저당하고먼저 일천륙백원을 바더서 오백원은착수금으로 이백원은 려비로 륙백원은 소개료로쓰고 잔액삼백원은 리한묵에게주엇다는사실이 잇슴을안이오 리변호사사무원신일호의팔천원횡령설은 사실착오의 풍설이라더라

密賣淫에鐵槌

부산경찰서(釜山警察署)에서는 음식뎜(飲食店)이증가됨을따라 풍긔(風紀)가 문란하다하야 횡정보안주임(橫井保安主任)의 지휘로 지난칠일오후세시로부터 오일오전륙시까지 부내 목지도(牧之島)일원(一圓)의밀매음을취테한결과 밀매음자다섯명을검거하야 즉시 본서로인치하고 엄중취됴중이라는데 그중에주인으로 밀매음한녀자가 두명이나 검거되엿다는바 도내(島內)각음식점을 비롯하야 각 료리뎜까지 일대소동이 이럿다는데 부산서에서는 근근부내를 일제히 대대뎍으로 밀매음취체를행할 모양이라더라(부산)

主義者連續檢擧
종로서에서

시내종로서 고등계에서는 지난오일에천진회원김유인(金裕寅)씨를검거하는동시에그가잇든려관을크게 수색한후 취됴를계속하는중이며 다시지난 구일오후에종로상에서 경성청년연합회(京城青年聯合會)상무위원리락영(李樂永)씨를검거하야역시동서에검속한후취됴중이라는데그내용은극히비밀히부치는까닭에아직알수업다더라

私屠牛로罰金
평남강동

평남강동군강동면하리(平南江東郡江東面下里)에 사는 박상린(朴尙麟) 오윤화(吳允華)두명은그동리성황제일(城隍祭日)에신고도업시사사로히소를잡아쓴바이강동경찰서에발각한바되여지난칠일에각각벌금이십원에처한바되엿다더라(강동)

金應模君送別會
양정

양정동창회원(養正同窓會員)김응모(金應模)군은금번대구디방법원안동지청의 판사(判事)로 임명되여 근근출발하게되엿는대 동회에서는 군을송별하기위하야 십삼일 오후세시에 시내식도원에서 송별회를 열터이라는바일반회원은 당일삼원의회비를 지참하고출석하기를바란다고

日人老人毆打
충북

청주 본정 이뎡목(忠北淸州本町二丁目)에 거주하는 고교의랑(高橋義郎)(六八)은 지난오일오후세시경 동군부강(芙江)에 잇는『윤영근』에게 구타를당하얏는데 그원인은 그날마침윤영근이가 술이취하야 길거리에서 고교를맛나서 술을한잔바다 달라고 구찬케함으로 고교는가젓든 단장으로한번 때렷든바영근은 골이나서 그자의단장을빼서가지고 멋번때린것이 방금생명이 위독하며 지금은인천신아 부어서 굴신을못하게되엿슴으로 이금보통위반 경찰서에서는 그시로 윤영근을 체포하야취됴중이라고(부강)

府內普校長會議
십일오전구시반부터 수송공보교에서개최

경성부(京城府)에서는십일오전구시반부터 수송공립보통학교(壽松公立普通學校)내에부내보교장회의(府內普校長會議)를개최하얏는바 그회의사항은 다음과갓다더라

一、來年度豫算에關한件

一、鄉土誌調查實施에關한件

一、朝鮮兒童協會에關한件

團體消息欄

◇京青臨時大會 지난삼월이래로집회금지를 당하고잇다가 여러동지의 알선으로 사월에집회가해금이 되엿섯스나 여러가지사정으로인하야 우금토록 집회를하지못하고 휴식상태에잇든경운동(慶雲洞)경성청년회(京城青年會)에서는 진용을정돈하기위하야지난삼일하오칠시에동회관에서집행위원회를개최하고토의한결과 오는십삼일하오칠시에본회관에서 림시대회를 개최하기로결의 하엿다는데 일반회원은만히참석하기를바란다고